

福音新聞社
大阪市西成区梅通5-2
電話(06)651-5196 ㊦551
連絡事務所・京都市右京区
西院先掛町20 京都教区内
電話(075)311-5051
発 価・丁 仁 素
印 刷・儒 文 社
電 話 (06) 716-5046
定 価 1 部 2 0 円

1. 教会革新
2. 社会变革
3. 世界所望

「在日韓國人の 삶의 보람」……主題

기보한바있는 재인대한기해 대비스목사가 각각 강토의, 전체토의, 스포오츠등

재일대한기독교총회 西成

7月18日 金正俊博士講演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a middle-aged man with dark hair, wearing thick-rimmed glasses, a white shirt, a dark tie, and a dark suit jacket. He is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with a neutral expression. The background is slightly blurred, showing what appears to be a building facade.

ॐ नमो भगवते वासुदेवाय ॥

텔·아비브 亂射事件에

제
劍의
戰歌와
구두소
가
여전히
살인자들과

일에서의 空港亂射事件으로 日本의 젊은 世代는 急變치로 劍의 歷史에로 다름박질한다. 그것이 侵略이건 革命이건 名分을 不問하고 殺人の 歷史일 때 그것은 여전히 남고 피비린내나는 非人道的인 것이다.

聯合赤軍은 世界同時革命을 말한다. 그러나 P E L P 에게는 이스라엘과

劍의 戰歌와 구두소리 劍의 戰歌와 구두소리가 들려온다. 憲法改正과 靖國神社國家管理等的 喊聲은 또 다른 각도에 서 이를 더욱 促進한다.

世界는 日本을 注視한다. 트랜지스터의 세일즈맨이 이제 테러리스트의 輸出國으로 變모하는가? 日本政府가 텔·아비브 事件 후 特使를 파견하

가 여전히 살인자들과 同類를 營容화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 日本人의 文 제가 아직 남아 있다.

日本人은 전쟁과 죽음을 로맨티하게 생각한 다. 그래서 明治百年을 침략과 전쟁의 劍의 역사로 살아왔다. 하기는 三島 사건과 이번의 텔·아

世連行의 린치를 半世紀나 체험하였다. 오늘 出入國管理令改正의 위협. 시 어둡다.

여기에 변화하는 日本의 내일을 우려하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기도하는 이 유가 있다.

洪東根

在日同胞에 福音 伝하기 위해

下関教会 홍영기목사는 년간 시무한 동교회를 사 임하고 지난 5월초 武庫 川教会 단임목사로 부임했 다. 武庫川教会는 고 회 재정목사가 시무했던 교회 로 尼崎市の 공업지대안에 있는 교회이다. 수 많은 동 포가 살고있는 지대로서 새	재일동포에게 복음을 전 하기 위해 기독교대한감리 회종교교회의 파송을 받은 김덕화선교사(42살) 가족일 행이 지난 6월 16일 K AL기편으로 伊丹에 도착 했다.
김덕화목사는 재일대한기 독교교회 岡山교회에 부임한 다. 김리교신대학을 졸업 한후 서울에 있는 월곡가 리교회에서 줄곧 시무해 는중 도일했다.	가족은 부인과 사이에 남·녀가 있다.

더위에 수고하시는 목사님께와 교회위에 하
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여러 목사님의 협력과 성원으로 본보 복음을
신분이 날로 발전하고 내용이 충실해지는 것
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신문들을 만
들기 위해 개교회의 소식을 많이 실코자 하
오니 목사님들께서 유의하셔서 매달 5일까지
주모를 모아 우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CC館長俞長老強調

KCC광장 유석준장로는 지난 6월 15일 기자와 만
난 자리에서 화제로 인한
복구작업이 만 2개월만에
완성하게 되었다고 말 하
고 전국 교회와 세계 교회
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한
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한
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
터 프로그램 활동에 치중
할 의향을 비치고 민족자
주성 확립문제가 시급하다.
고 강조하면서 지도자양성
지도자양성지역사회개발
사업에 힘써줬다고 다짐했다
사

배기수장으로장립식
宇部教會의 最初長老
해방후 교회재건에 헌신
하고 교회의 숨은 일꾼은
로 주일학교와 청소년들
아껴 봉사해온 배기수집사
가 오는 6월 16일 동교로
회인 宇部教會에서 장로장
립식을 거행한다.

단 본보 5월호 제2면
광고난에 下関教会

永其목사는 5월초에 동회를 사임했으며 水島教李海春강도사는 작년에 崎教會로 전임하였음으로 잡습니다。

파도, 양, 나무

다.	현명하다는것을	명으로	가
스	로가	으로	로
그들	자신보다	더욱이	재일동포들
민	스	그렇게	있는
국	만	믿고	0년
인	수	않다.	195
민	청	6월	25일
사	와	새벽	북한
회	탄	북한	공산군이
교	입	소련의	탱크를
하	에	앞	세우고
		있	평화롭게
		살고	있다
		군화	던 서울을
		남	로 짓밟고
		충과	칼로
		남	한에 있는
		무수한	부모형
		척	제의를
		한	침략의 역사
		같은	아 일이다.
		숙아	바로 공산주의자의
		무	지도 바로
		인식	서운 만행과
		의한	하지 못하고
		있는자	최근 정화한
		자료에	책자들이
		의한	많이 방해되고
		있	음을
		생각한다.	아무리
		우두머리	적인 소련의
		하더	라도 피를
		같은	민의
		침	족의 살생을
		청부반아	락할 명령하는
		어디서든	자가
		어디	있는가!
		꼭	각각시
		영웅시하	고 우상화하여
		위대한	지도자나
		내	세우는
		말로 전	정책임의
		들이다.	세계 제2차
		많은 전	쟁물자를
		학살한	복한 괴뢰정권의
		괴수	김일의
		의	심판받을
		것이며 그	름으로
		그	죄를
		없을것이	죄과가
		다	들어날까봐
		먹	고 거꾸로
		배	해 왔으나
		법	일은
		오래가지	이다.
		기만과	모략으로
		공산주	의 선전을
		있지	만 무서운
		있지	끌려가고
		있을	스
		덕	다.

五千余軍人洗礼

軍人信者化運動拍車

창세기후 최대의 합동세례라고 하여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던 1997부대의 3천7백44명의 합동세례식이후 군의 정신무장은 기독교 신앙과 정신으로만 이루어진 뒤를 이어 또다시 중등부전선에서 5천여명의 거대한 세례식이 준비되고 있는 군지휘관은 물론 일반인의 관심은 기독교 신앙과 군지휘관 군목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하고 있다.

육군 군종감 한준섭목사에 의해서 박정진바에 의

과를 거두는 역사적인 사건은 한국군종사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6월중 거행될 합동세례부대는 8월에 제9280부

獨身者教會誕生

世界最初로 美國加州에

자별한자 이혼한자 미혼 독신자들에 대한 세계최초의 교회 탄생했다. 목사 자신도 이혼한 중국계 미국인 리차드·첸(43才)은 3년전 자신의 미혼을 통

한 고독의 체험으로부터 독신자를 위한 영적배려의 필요를 절감, 금년 1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시 Y M C A 내에 창설하여 지금 1백명 넘는 회원을 가지고 이름도 제1독신자교회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독신자에 대한 배려에 무지하여 거의 무책(無策)이었

다. 특별히 현대와 같이 부부중심사회에서는 독신자들의 소외감은 더한다. 이 주전에는 Y M C A에서 제

신임 이영훈교장은 전북 신의주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졸업후 문교부장관, 교육연구관을 거쳐 주일대한민국대총영사관 교육담당

부영사로서 1964년부터 68년까지 일한바 있다. 경기도 금곡원에 고등학교 교장으로 봉직하다 이번에는 동교에 부임하게 된것이다.

田永福牧師 回復 家庭에서 靜養中 재일대한기독교교회총회 전

關西信徒神學院

京都分校 盛況

지난 5월 1일 관서신화·목요일 밤에 공부하고 도학원 大阪本교와 함께 개 있었다. 장사는 전영복, 홍동원한 정도는 교는 현재 남근, 조환제목사와 정혜중전

신하고 있다. 장장로는 첫째이며 일본에 들어와 大阪市立復本小學校를 졸업한후 관서상공학교를 거쳐 동경目黒고등부전선학교 재학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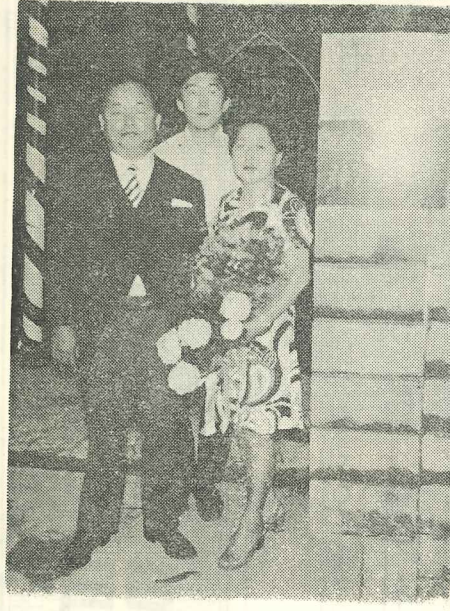
에 학도병으로 끌려나가 자선을 몇번이나 넘겨 중전을 맞았다. 해방후 귀금속가공업을 경영, 신용과 진절을 본위로 조지인관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神戸市須磨區若木町二丁目2-13에서 보석

神戶教會 張尚宰長老

奉仕 잘하는 模範敎人

神戶教會 張尚宰長老는 사하는 모범된 교인이다. 24살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후 독실한 신 서부랜치 이사로서 재일 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봉 한국인청년들의 지도에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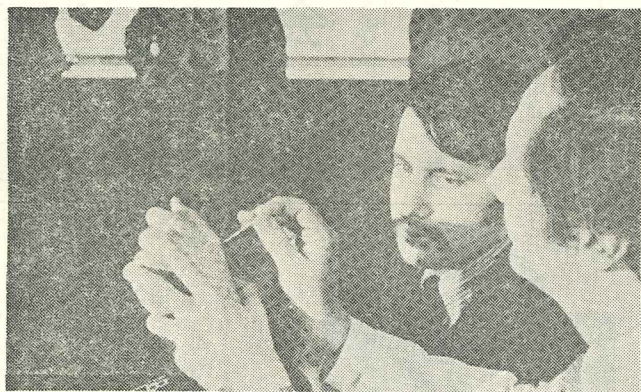


장 金泉堂을 경영하면서 東京金泉化學工業株式會社 전무취체으로 일하고 있는 장상제장로는 작년에 장로직임을 받았으며 정수단여사와의 사이에는 장남 태흥군이 있다.

英語會話集中講座

KCC 루츠양 맞아 實施

한국기독교교회(CKC)에 영어회화집중강좌를 시작한다. 8월 31일까지 9주간 매주 5일간 계속되는 강좌는 A반과 B반을 나누어 일반과 중급교생 대



中國系美國人 리차드·첸牧師 設立

京都教會 소식

김덕수집사 장로장립식과 최재용 최덕암양집사의 집사안수식이 오는 7월9일 오후3시에 동교회에서 거행된다.

한편 여전도회는 부활절 이후 교회배가운등과 성도의 교제를 위해 주일예배후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매주 1백여명의 신도가 점심식사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깊게 하고 있어 여전도회는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다.

장으로 실시한다. 루츠양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소학교의 교편을 잡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제1장로교회에 소속한 집사로 성가대원으로서도 교회에 봉사하고 있다. 하기방학을 이용하여 KCC의 프로그램들을 돕기위해 내일한다.



聖書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아 이제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 완전한 자유의 봉사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것이 되었다"(고전5:1-2) "종"이라는 말은 특히 소명을 받은 "일꾼"이나 "자역자"(diakonos) (고전3:5, 고후3:6, 엠3:7)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성도 들은 예수안에서 한몸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의 친교가 발생하였다. 예수의 속죄로 만민이 하나가 되었고, 백성의 존립이 가능하다. (堺教會 尹宗銀)

빌립보서

인사 (1장:1-2절)

①본서의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이고 수신자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와 같이 자기의 사도직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빌립보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애정에 넘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 빌립보교회에 잘 알려져 있었다고 본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다. 그는 죄에 얽매어 자유가 없던 죄의

②하나님 우리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 구원의 창시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인간세상에 평화의 기쁜소식을 가져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화목케 하시었다. "은혜와 평강"은 헬라인과 히브리인의 두개의 인사를 결합한 말이다. "은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위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종애이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의 확신이다. 이 두가지 축복은 하나님 우리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축복이다. 처음 인사의 항목에서 생 각할 문제에, ①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이며, ②교회안에 형제들을 하나님의 백성(성도)으로 삼기며 ③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빌어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福音伝播하는 韓国」印象 주어

◆平野教会聖歌隊

台灣教会 招請을 받고

牧師丁仁壽

가는 곳마다

뜨거운 歡迎

금년 1월말에 갑자기
대만기독교장로교회 설립
백주년기념대회에 제일대

한기독교회총회 平野教会
성가대를 초청한다는 내
용의 서한이 날라왔다.
성가대원들의 의향을 물
었더니 모두 참석할 뜻

이 있다고 해서 회답을
보냈다. 2월말에 정식
초청장이 도착하여 그때
부터 본격적으로 성가연
습을 시작했다. 출발할
때는 자신을 가지고 대
阪공항을 떠나 대만공
공항을 떠나 대만공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복은 천에다 平野教会聖
樂團 歡迎이라고 쓴 글
자로 써서 퍼 들고 많은
대만교회 교인들이 맞이
하여 주위서 감격한 마

음과 진심으로 감사했다.
5월 14일주일 오전에
배는 台北市內에 있는 南
門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
았다. 이 교회는 대만
전국총회장의 교회인데 역
시 공항에서와 같이 굵
은 글자로 平野教会聖樂
團 歡迎이라고 써서 교회
밖과 안의 장단위에 불
이그 환영하여 주었다.
마침 머니주일이어서 사
회는 총회장이 맡고 설
교는 필자가 하고 성가
대는 平野교회성가대만
차대순서에 들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불
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
렸다. 그날밤에는 基隆市
의 安樂교회에 갔다. 이
교회는 대만교회 중경총
회장의 교회로서 이곳에
서도 역시 뜨거운 환영
을 받았다.

출대를 세워놓고 불은 아
직 부치지 않고 있었다.
식당에는 만월이 되어 참
석자들이 시간을 기다리
고 있었다. 필자도 이미
제단에 등단하여 지시대
로 우편좌석에 자리를 정
하고 앉아 있었다. 8시
가 되니까 회관 중간통
로 제일 뒤에서 대만국
기와 백주년기념기가 입
장하기 시작했다. 모두
기립을 하였는데 필자가
멀리서 보니까 제일 선
두에 한복차림의 치마저
고리를 입고 굵은 초콜
을 두손으로 들고 조용
히 입장하는것이 보였다.
가까히 오는것을 보니 딸
추자인것을 알았다. 필자
가 감격 놀란것은 두말
할것 없었다.

1만명이 넘는

백주년식전

특기할 사실은 5월 16

일밤에 台北市中華體育館
에서 대회가 시작되었는
데 참석자수는 1만명이
넘었고 정면에는 높게 제
단을 만들고 중간후면에
는 일곱개의 굵고 높은

일곱돛대에

秋子嬢들

대만기독교장로회 설립
백주년기념대회 대식전의
제일 중요한 일곱돛대에
불을 부치는 역할을 우
리가 하였으니 참으로 역
자에 남을 일이며 기쁘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후일에 한국에서 기독교
장으로교를 대표하여 참석
한 최목사는 그때는
물을 홀리면서 기뻐했다
고 말했다. 또 대만에
있는 한국인 목사들도 우
리 한국에서 가령 선교
배주년기념식을 한다면 아
마 외국사람에게 이 일
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
고 말들을 했다. 또 한
국의 기독교대부중에 불
형의 기독교대부중에 불
은 우리 한국사람이 일
어킬것이라고 말하면서
대만사람들의 폭이 넓은
점등 칭찬을 아끼지 않
았다. 카나다전교사들의
가정과 자기나라 사람들
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있
는 한국사람이 하게된것
은 기리 남을 일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특별
음악집회를 갖게 되었다.
台中市、高雄市、台南市
가는 곳마다 대성회를 이
루었고 깊은 감명을 받
았다는 인사가 꼬일사이
없었다. 치마 저고리의
한복 차림으로 성가대원
들이 시내를 다니면 모
든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
온 韓服의 청년들이라고
야단들이다. 한국인 선교
사들도 복음을 전하는 한
국인이라고 하면 대만사
람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친밀감을 갖게 되었다고
감사합니다고 인사했다.
대만서의 전일정을 성화
리에 마치고 5월 26일
일본으로 돌아왔다.
이번에 우리 성가대가
대만장로교백주년기념식전
에 참석하고 돌아온 큰
의의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한국이라는 인상
을 모든 대만사람들에게
주게 된 것이다.

教会教育

この前の欄には、教会教育を改善する必要性について書きました。けれども問題は改善することが出来るか、と言うことです。ある人は「いいえ無理です。」と言うでしょう。できるものならいいけれども、うちの教会は小さくて教師にな人もいないし、子供は少ないのですから良い教育が全然できないと言う人が多し訳です。けれども私はそれが信じられませんか。また、その言い訳を受け入れ

心なのです。「やる気があ

れば何でも出来る。」と言う事です。もちろん教材と教え方の訓練が必要ですが、まず一番必要なのは「やる心」であります。それがあ

あなたの教会にも

良い教育ができる

なら次の一方は何でしょう

出発しなければならぬと思

第3世界とキリスト教

池 明 観 著

アジア宗教と福音の論理

B6・美装・P,302・700円・〒70

<内 容> 1 アジア神学の諸問題 2 宗教倫理に対する序論 3 アジア教会の苦悩 4 近代化における宗教の役割 5 イスラムにおける啓示の問題 6 韓国教会の温情主義 7 韓国のキリスト教との対話 8 ソウルの便り……

政治、経済、文化の問題がはらむ人間の悲惨と栄光に連帯しながら、革新と自立を求めて戦っているアジア、アフリカ、ラテン・アメリカ—いわゆる第三世界のキリスト者と生活と思想の理解を通して、そこに胎動するキリスト教の新しい希望を追求するのが、この双書<第3世界とキリスト教>の目的である。第一冊の本書は、いま韓国の言論・思想界で指導的役割を果たしている徳成女子大学教授池明観氏が、宗教哲学者としての立場から、今日のアジア各国の諸宗教の現状、背景を分析、とくにキリスト教のあり方を鋭く追求した最近の論文・随想を収録した。日本キリスト教団の戦争責任告白の問題等、いずれも日本の教会にとって有効な忠告である。

論壇

日本人は極端から極端に走る民族のようだ。菊花から剣へ日本人の歴史はまた大きく転換するののか？

日本刀をふりまわし旋回機を隣国である韓国へ強制拉致した時、世界は驚いた。続いて浅間荘集団リンチ、今は遠くイスラエルでの空

き、それは前とかわらない古きナグサイにおいがする非人道的であるのである

テル・アビブ事件に思う

政府がテル・アビブ事件後すばやく特使を派遣し慰問金を約束しイスラエルと被害者各国に謝意を表したことはまことに当然なことである。一方日本教会が民族の連帯性から責任を表明し

祖国訪問の思い出

徐英花

이 "영자" 재일한국 YMCA 관서부랜치 의 프로그램에 의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조국 방문을 하고 돌아온 재일한국인 청년의 감상문이다.



感激の涙こぼれ 心温かい親しみ

母国訪問、さまたまのうわさを聞き知り乍ら出発し、希望と不安のま、釜山空港に到着した。何となく胸がいっぱいになった。やはりこれが私の祖国だという

実感を感じたからである。か。出迎える人達をみて、ほっとするやら感激の気持ちで思わず胸がいっぱいになり、涙がこぼれそうになるのを感じた。

釜山市内は日本とあまり変らない街並で、ビルディング等にはたいした異国感はなく、日本のどこかを旅行している様にも思えた。しかし、若い人達の服装などをみると、地味な日本人と違って色彩のあざやかさが印象的であった。

大田郊外の儒城温泉に行っておどろいた。いい温だなど歌の一つも出るどころか、湯は湯がねの半分ぐらい。脱衣場は砂だらけ、シャワーは申し訳にチヨロチヨロ、大さわぎのお

安里淑著 たといそうでなくとも

風呂見学であった。行く先々での人とのふれ合いにはだれも温かく親切で、たった一日、二日行動を共にした人達でも長年一緒に暮して来た身内の人達のように感じられ別れの時は大変

安里淑著 たといそうでなくとも

安里淑著 たといそうでなくとも

安里淑著 たといそうでなくとも

安里淑著 たといそうでなくとも

安里淑著 たといそうでなくとも

安里淑著 たといそうでなくとも

제3일 The Third Day

평생을 신학교육과 후진양성에 심혈을 기울려 온 김재준박사가 친히 주간으로 만들어 내는 제삼일!

구독자는 경도교회 흥동근목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遂に発売!! 安里淑夫人の問題作の書

たといそうでなくとも

内容の一部

- 山室救世軍中将与宇垣大将与の会見
- 富士見町教会に日中中将・松山代議士を訪ねる。
- 帝国議会へ朝鮮キリスト者の迫害を訴える。
- 検束
- 獄中六年余の生活の記録・芸者・仙花—のちに伝道者になる。少女死刑囚・満州生れの女死刑囚・極寒の夜

を祈りに明かす母・皮バンドを噛む人々。

等々60項目、A5版 609頁 二段組。全篇信仰に満たされた恩寵の記録。校正者7人が、いたる個所で、涙をさそわれ、励まされ、生ける信仰を教えられた。

私たちは心から日本のすべてのキリスト者に本書をお贈りしたい。

待農社刊 東京都中野区白鷺2-22-1

待農堂発売 東京都杉並区西荻南3-16-1